타이완, 석유화학 투자확대 붐물!

CPC · TPG 등 2003년 1200억T元 달해 ... 중국시장을 타겟 설정

타이완의 석유화학기업들이 대형 투자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에틸렌 생산기업인 中國石油나 Taiwan Plastics Group을 비롯한 석유화학기업들이 2003년에 타이완에서 투자하는 총액은 1200억T元(타이완)으로 예상되고 있다.

中國石油는 총 투자액이 920억T元으로 경제부로부터 高雄製油所를 하이테크 석유화학단지에 전용하는 허가를 취득해 266억T元을 투입함으로써 나프타 분해 크래커와 부타디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中國人造纖維, 國喬石油化學, 타이완 Polypropylene, 長春石油化學 등의 유도제품 메이커에 투자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中國人造纖維는 60억T元으로 EG 공장을 건설할 방침인데, EG 생산능력은 40만톤으로 기존의 13만톤은 가동을 중지할 예정이다.

中國人造纖維 산하의 Pan-Asia Chemical은 10억T元을 투자해 계면활성제 설비를 증설해 중국의 세정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며, Taiwan Styrene Monomer는 20억T元으로 林園石化단지의 SM 플랜트 생산능력을 34만톤에서 2년 후 54만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타이완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중에는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중국은 해외의 대형 메이커가 진출하고 있어 공급과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타이완에 조기에 건설해 동아시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완공 후에는 아시아 최대 메이커로 부상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한편, Taiwan Styrene Monomer의 2002년 경영설적은 매출액 14억T元, 세금공제 후 이익 9억T元으로 나타났다.

Taiwan Plastics 그룹은 麥寮離島工業단지에 중간원료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FCFC가 BTX공장, 南亞Plastics(FPC)가 PVC 설비를 증설해 중간원료의 생산확대에 나서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18>